

미셸 IAA 사무총장 대전 방문

<국제우주학회>

박시장과 국제우주대회 준비상황 논의... 오늘 우주포럼 참석

미셸 콩탕(J. M. Contant·사진) IAA(International Academy of Astronautics 국제우주학회) 사무총장은 3일 대전을 방문, 박성호 대전시장을 예방하고 내년 제60회 국제우주대회 준비상황 및 학술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CSA(중국 우주학회)- IAA(국제우주학회) 정기회의에 참가한 뒤 대전을 찾은 미셸 사무총장은 이날 박 시장으로부터 IAC 2009 Daejeon 개최장소를 소개받은 뒤 국내 IAA 회원인 최순달 대덕대학장, 백홍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접견하고 행사장 등을 시찰했다.

미셸 사무총장은 4일 2009 국제우주대회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우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제60회를 맞이하는 국제우주대회와 앞으로의 발전전략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국내외 우주 전문가 정책포럼

제2회 우주포럼은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최홍식)와 한양대 우주 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3시 서울 한양대



기술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내외 관계전문가와 유관기관, 학회,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포럼은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의 행사 대행사인 이즈엠피의 국민영 차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문기 거대과학지원관 등이 참석,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의 범국가적 행사화 방안과 영국 글래스고우(Glasgow) 대회를 통한 대전대회의 성공 전략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1회 우주포럼은 지난 8월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관계전문가와 지역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내년 국제우주대회(IAC), 중국 우주과학자 대거 참여

2009 국제우주대회조직위원회 최홍식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3회 CSA-IAA 회의에 참석, IAC 2009 Daejeon 참가 유치활동을 펼

쳤다.

CSA-IAA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 총장은 IAC 2009 Daejeon 개최에 대한 보고를 하고 주요 참석인사와 면담을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행사참여 약속과 함께 기업 유치 활동으로 탈레스 알레니아(프랑스), 록히드 마틴(미국) 등 글로벌 기업의 전시참가 및 후원 약속을 받았다. [한남희 기자 nhhan@ccsoday.co.kr](mailto:nhhan@ccsoday.co.kr)



IAA(International Academy of Astronautics 국제우주학회)

: 국제우주학회는 IAF(국제우주연맹)가 1960년에 설립한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96년 유엔으로부터 독립 NGO로 인정받았다. 현재 미국 에드워드(Edward C. Stone) 교수가 회장으로 있으며 75개국 1266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는 최순달 대덕대학장, 은종원 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 백홍열 항공연구원, 박상영 연세대 교수, 김병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